

창업의도 요인에 관한 연구 -기업가정신에 따른 개인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유진¹⁾, 이병희²⁾

A Study on Factors of Intention of Startups Cre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y Entrepreneurship-

Yu-Jin Chang¹⁾, Byung-Hee Lee²⁾

요 약

창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개인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30대~60대 사이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74부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이를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개인적 특성 중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사회적 지지와 개인적 특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을 거쳐 창업의도로 가는 경로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적 특성 중 외향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예비창업자들의 증가와 성장 및 창업의도 고취를 위해서 이론적 시사점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창업의도, 개인적특성,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Abstract

As startups become socially important, research into the factors affecting startups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exi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intention of startups creation. A structu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among employees in their 30s~60s who are above the middle manager level of the company. Data were collected from 374 piece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Received(June 4, 2019), Review Result(June 27, 2019)

Accepted(August 8, 2019), Published(August 31, 2019)

¹⁾Graduate Student, 04763,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choachoa2@hanmail.net

²⁾(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04763, School of Business, Hanyang Univ.,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Korea

E-mail: blee@hanyang.ac.kr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 2019 HSST

analysis was performed. Analysis shows that the higher entrepreneurship is, the higher the extroversion, desire to achieve, self-efficiency and intention of startups creation, and the higher social support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he higher the intention of startups creation. Entrepreneurship has been found to partially mediate the path of intention of startups creation through self-efficacy. the relationship between extroversion of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e intention of startups creation depends on the degree of social support,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ose findings are intended to present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growth of the nation's prospective startups and the promotion of their intentions.

Keywords: Entrepreneurship, Intention of Startups Crea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Self-Efficiency

1. 서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지원 정책에 따라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경영환경 체제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미래 가치 실현을 선도할 스타트업, 즉 창조적 기술과 사고를 보유한 신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장려하며 육성하고 있다[1].

창업은 계획적인 일련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된다[2]. 김지영과 이예림[3]의 창업활동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창업기업이 기타기업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르고 장래의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업을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예비 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며 이를 위해 창업에 대한 긍정적 가치 인식의 태도, 즉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4].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행요인이 창업의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선행요인으로 기업가정신을 선정하여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 중 하나가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특성[5] 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특성의 하위변인에 외향성 요소를 포함시켜 창업의도를 연구한 관련 선행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을 매개변수로 활용하여 하위요인에 외향성, 위험감수성, 자기효능감을 포함시켜 개인적 특성의 어떤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더불어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창업이라는 험난한 과정 속에서 사회적 지지는 창업자에게 잠재적 힘의 원천이 되며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6],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7].

본 연구의 의의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동시에 개인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에게 창업의도 향상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더불어 개인의 고유한 개인적 특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긍정적 자원인 사회적 지지 변수까지 이해하여 동시에 연구한다면 창업의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Entrepreneurial Intention'을 번역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창업의향, 창업의지, 창업의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들의 미래의 의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창업의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8].

창업의도는 실질적 창업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스스로 창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여 미래에 창업하고자 하는 갈망과 기업가적 행동으로 표현될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9]. 또한 잠재적인 예비 창업자가 사업구상을 준비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해 몰입하고 행동을 취하고자하는 창업자의 마음가짐이다[10]. 창업의도는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기 위한 발판을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과정 속에서 필수적인 개념이다[11].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2]와 창업이 개인의 특성과 주위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13] 주장을 근거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기업가정신,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2 기업가정신

Morris과 Paul(1987)[14]은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사업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시도하는 혁신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의 특징이라 정의하였고, Baron과 Shane[15]은 기회를 찾으며 혁신적인 행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은 급변하는 기업의 경쟁 환경 하에서 자원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인 경험을 추구하며 새로운 가치와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성장에 필연적인 태도와 역량이라 하였다[16]. 때문에 기업가정신에 의한 창업과 성장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기에 중요한 요인이다[17]. 현재까지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기존의 학자들은 기업가정신을 크게 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였다[18-20].

2.2.1 혁신성

혁신성은 기업가정신을 묘사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며 기업에서 참여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실험 및 창조적인 절차에 대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21]. 또한 기존의 프레임에 갇힌 생각과 감정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다[22]. 기존의 기업가정신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기업가와 비기업

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견하였는데 이 중 혁신성도 포함된다[23]. 이처럼 혁신성은 기업가들이 겸비한 역량과 자질로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을 시작하는 주요동기가 될 수 있다.

2.2.2 진취성

진취성은 시장 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 경쟁의지와 경쟁자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산출하려는 의지, 동시에 경쟁자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공격적으로 도전하려는 자세를 포함한다[20]. 이춘우(1999)[24]는 새로운 시장 수요에 맞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기회를 감지하고 창출하는 경영 프로세스를 진취성이라 주장하였다. 진취성은 예비 창업자가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는 확률을 높이며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5].

2.2.3 위험감수성

위험감수성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자아실현감 충족을 위해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이며[26],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일지라도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투자하려는 기업가의 행동이다[2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결과, 위험감수성향이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8]. 또한 창업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위험감수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2.3.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은 연령, 성별, 가족관계 등과 같은 개인의 배경이나 성취 욕구, 자아효능성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창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을 가장 많이 참작한다[30]. 본 연구에서는 최윤정(2011)[31]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특성에 해당하는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으로 선정하고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3.1 외향성

성격 이론 연구에서 외향성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져 끊임없이 연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현재 통용되어지고 있는 외향성의 개념의 대부분은 Jung의 심리 유형 이론과 Eysenck의 심리 측정의 경험적 연구에서 유래되었다[32].

Jung(1971)[33]은 정신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며 객관적 현실의 외부세계에 가치를 두며 추구하는 성격을 외향성이라 하였다. 자아가 외부 대상에 반응하는 방향이 수동적인가 능동적인가에 따라 성격 태도가 결정되는데, 능동적인 태도를 외향성이라고 한다[32]. 외향성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성격특성으로 사교적이며 활동적이며 문제해결지향적인 경향이 있어 어려운 문제 상황 혹은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대처를 하는 안정적인 성격기질을 반영한다[34].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객체를 중요시하고 외부의 변화에 끊임없는 관심을 두며 이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33].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추구하고 타인의 관심을 갈망하고 사회적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35]. 김혜선(2010)[36]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외향의 성격 요인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소희(2007)[37]의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측정하는 유의미한 변인은 외향-내향형으로 외향인 성향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성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창업이 자신이 주도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의 가치 창조 활동[38]이란 점에 비추어 외향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2.3.2 자기효능감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개인적 특성의 요인은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다[39].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최적의 수준으로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확신으로 정의된다[40]. 특정 영역에서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주어진 난관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도전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노력이 허사가 되었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자신이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으며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강한 책임감을 가진다[41]. 이를 창업에 대입시켜 본다면 자기효능감이 강한 사람은 창업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처할 수 있는 난관과 위협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통제할 수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것 이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39].

개인적 특성, 주관적 규범,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역할을 연구한 한수진과 이종건(2017)[42]은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양준환(2014)[43]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도 사이에 유의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을 통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창업의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다.

2.3.3 성취욕구

성취욕구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려는 욕구와 장애 및 난관을 이겨내고 자신의 성취하려는 것을 이루려는 욕구로, 즉 자신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고취하려는 인간의 욕구로 정의된다[44]. 성취욕구는 창업자에게는 핵심적인 동기요소이며 경제발전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사회적 경쟁을 통해 자신의 특정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으므로 창업자에게는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45].

창업자의 성취욕구와 창업 관련 성향, 의도 관계를 상이한 23개의 실증연구 결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개의 행동과 성향이 창업의도의 관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6]. Komives(1972)[47]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성공적인 창업자의 공통적인 특성이 높은 성취욕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규명하였다. 박시사와 강성일(2007)[48]은 성취욕구가 높은 개인일수록 성공에 대한 자신감 또한 높아서 성취 욕구가 낮은 사람보다 더 창업을 시도하려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2.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주변인들로부터 제공받는 실제적 지지와 주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식하게 되는 연대감과 신뢰감, 자부심을 아우르는 개념이다[49]. 한 인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배우자, 가족, 친구 등 의미 있는 주변인들로부터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은 개인이 지쳐 쓰러지지 않고 건전히 지탱하게 만들어 준다[50].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창업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수준이 높다[51]. 창업활동에 있어 사회적 지지는 미래 창업자의 핵심 자원임과 동시에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이다[51].

House(1981)[52]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의 4가지로 분류하여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지는 개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끔 해주어 자신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위를 얻고 동경의 대상이 되도록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행위로서, 존경, 존중감, 신뢰, 친밀감, 관심, 경청 등의 제공을 들 수 있다. 평가적 지지는 개인에게 역할 수행과 행위에 관한 구체적 평가정보를 전달하여 스스로 피드백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써 확인, 피드백, 수용, 긍정적 환류, 자아평가, 인정, 사회적 비교를 제공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정보적 지지는 타인이나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제기되는 난관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충고, 정보, 제안, 지시 등을 제공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적 지지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위로서 현물, 현금, 노동력의 제공, 환경의 개선 등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오승국(2015)[5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중장년층 실직자의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경석(2014)[54]의 한국 거주 중국동포의 잠재적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줌과 동시에 창업동기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창업동기로 전문성을 추구할수록, 창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할 수록 창업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지지가 창업기회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김상수와 임왕규(2017)[55]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창업기회역량의 기회인식과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인적 특성 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2.5 가설과 연구모형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업활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첫 걸음인 창업의도에 주목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설과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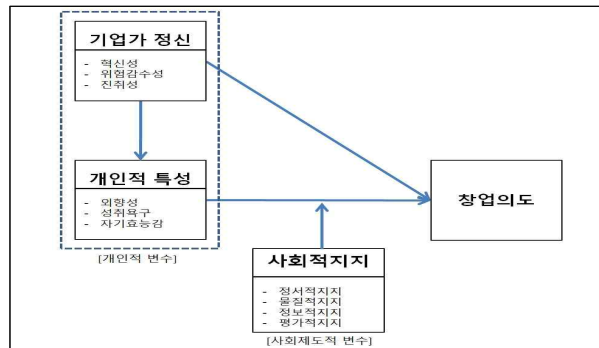
[가설 1]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업가정신이 개인적 특성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개인적 특성이 매개할 것이다.

[가설 5]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국내 30대 이상의 직장인이며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용하였다. 2019년 1월 1일부터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2019년 2월 25일까지 375부의 설문을 수거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부를 제외한 총 374부의 설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15분이었다.

본 연구대상의 연령 범위는 만 30세~만 66세이며 평균(표준편차) 연령은 만 41.29세(9.30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은 남성 241명, 여성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이하 19명, 전문대 졸업 33명, 4년제 졸업 232명, 대학원 이상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 59명, IT 33명, 서비스 87명, 유통 45명, 소매 4명, 기타 146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 미만 23명, 200~300만원 미만 70명, 300~400만원 미만 99명, 400~500만원 미만 59명, 500~600만원 미만 33명, 600만원 이상 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374)

구분		N	%
성별	남성	241	64.4
	여성	133	35.6
학력	고졸 이하	19	5.1
	전문대 졸업	33	8.8
	4년제 졸업	232	62.0
	대학원 이상	90	24.1
업종	제조업	59	15.8
	IT	33	8.8
	서비스	87	23.3
	유통	45	12.0
	소매	4	1.1
	기타	146	39.0
월 평균 급여	200만원 미만	23	6.1
	200~300만원 미만	70	18.7
	300~400만원 미만	99	26.5
	400~500만원 미만	59	15.8
	500~600만원 미만	33	8.8
	600만원 이상	90	24.1

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하위요인이 있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척도는 타당도 확보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에 의한 요인추출방법과 요인의 해석을 단순화하는 배리맥스(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4이상이면 해당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2.1 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1987)[56], 이춘우(1999)[24], 박상용(2003)[57], Dess (2007)[58], 강병오(2010)[59]가 사용한 기업가정신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 요인은 3문항씩 총 9문항이며 총점의 범위는 9~4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가정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장정용(2015)[60]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0~.83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 3번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문항을 제거하고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값은 .825로 최소 기준치인 .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pproximated-X²=932.05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혁신성 .71, 위험감수성 .78, 진취성 .69로 산출되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 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기업가정신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2]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ntrepreneurship Scale

요인	측정문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위험감수성	기업가정신5	.771	1.76	22.01	.78
	기업가정신4	.714			
	기업가정신6	.590			
진취성	기업가정신8	.747	1.44	18.04	.69
	기업가정신7	.622			
	기업가정신9	.451			
혁신성	기업가정신1	.958	1.31	16.31	.71
	기업가정신2	.430			
누적분산(%)		56.37			
KMO 측도		.82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 ² (28)=932.05(.000)			

3.2.2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윤정(2011)[31]이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작한 개인적 특성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외향성, 내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의 3개 하위요인을 활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의 성격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윤정(2011)[31]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외향성 .90, 성취욕구 .89, 자기효능감 .91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값은 .847로 최소 기준치인 .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pproximated-X²=1912.74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외향성 .76, 성취욕구 .84, 자기효능감 .78로 산출되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개인적 특성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of Personal Characteristics Scale

요인	측정문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성취욕구	개인적 특성5	.653	3.08	20.53	.84
	개인적 특성11	.643			
	개인적 특성6	.641			
	개인적 특성8	.637			
	개인적 특성9	.627			
	개인적 특성10	.601			
	개인적 특성7	.584			
자기효능감	개인적 특성1	.845	1.98	13.17	.78
	개인적 특성2	.842			
	개인적 특성4	.532			
	개인적 특성3	.424			
외향성	개인적 특성15	.701	1.95	13.01	.76
	개인적 특성14	.683			
	개인적 특성12	.661			
	개인적 특성13	.551			
누적분산(%)		46.71			
KMO 측도		.8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 ² (105)=1912.74(.000)			

3.2.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House(1981)[52]가 사회적 지지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Wei & Wang(2009)[61]이 제작했으며 김재호(2013)[62]가 수정 및 보완한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점의 범위는 15~75점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지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임교순(2017)[6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척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표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KMO 측도값은 .919로 최소 기준치인 .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문항들의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의 여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Approximated-X²=3475.72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집된 자료와 측정항목은 요인분석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정서적 지지 .84, 물질적 지지 .82, 정보적 지지 .88, 평가적 지지 .87, 전체 .93으로 산출되었고 측정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모두 .4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 사회적 지지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of Social Support Scale

요인	측정문항	요인부하량	고유값	설명분산(%)	Cronbach's α
정보적 지지	사회적 지지9	.781	3.30	22.00	.88
	사회적 지지11	.735			
	사회적 지지10	.673			
	사회적 지지8	.317			
평가적 지지	사회적 지지14	.782	2.34	15.61	.87
	사회적 지지15	.722			
	사회적 지지13	.561			
	사회적 지지12	.418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2	.813	2.21	14.72	.84
	사회적 지지1	.725			
	사회적 지지3	.577			
	사회적 지지4	.452			
물질적 지지	사회적 지지6	.919	2.00	13.33	.82
	사회적 지지5	.648			
	사회적 지지7	.539			
누적분산(%)		65.66			
KMO 측도		.91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X ² (105)=3475.72(.000)			

3.2.4 창업의도

창업의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inan과 Chen(2009)[64]의 창업의도 설문(EIQ)을 김지혜(2018)[65]가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 5점(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지혜(2018)[65]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계수는 .94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고 하위요인이 있는 기업가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의 모수를 추정하고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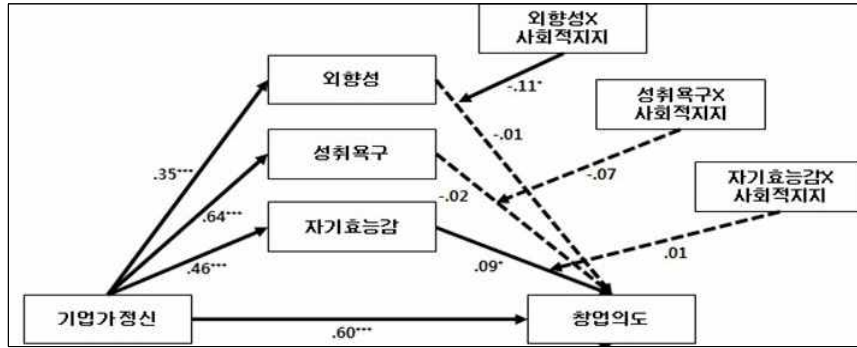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과 정규분포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변인의 왜도 범위는 $-.46 \sim .30$, 첨도 범위는 $-.78 \sim 1.33$ 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고 첨도는 10보다 작으므로 모든 변인이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함을 알 수 있었다[66].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은 외향성($r=.35, p<.001$), 성취욕구($r=.64, p<.001$), 자기효능감($r=.46, p<.001$), 사회적 지지($r=.35, p<.001$), 창업의도($r=.62, p<.001$)와 정적상관이 있었고, 외향성은 성취욕구($r=.25, p<.001$), 자기효능감($r=.20, p<.001$), 사회적 지지($r=.20, p<.001$), 창업의도($r=.21, p<.001$)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욕구는 자기효능감($r=.46, p<.001$), 사회적 지지($r=.34, p<.001$), 창업의도($r=.41, p<.001$)와 정적상관,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r=.31, p<.001$), 창업의도($r=.35, p<.001$)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r=.25, p<.001$)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경로분석

4.2.1 직접효과분석

연구모형으로 기업가정신이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사회적 지지가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경로를 설정하여 개인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NFI, IFI, CFI, RMSEA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NFI[67], IFI[68], CFI[69]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70]는 .05미만이면 좋음, .08미만이면 괜찮음, .10미만이면 보통,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단한다.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NFI=.930, IFI=.947, CFI=.946, RMSEA=.088로 양호하게 나타나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그림 2]과 [표 5]에 제시하였다.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기업가정신은 외향성($\beta=.35, p<.001$), 성취욕구($\beta=.64, p<.001$), 자기효능감($\beta=.46, p<.001$), 창업의도($\beta=.60, p<.001$)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자기효능감($\beta=.09, p<.05$)도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가정신이 높을수록 외향성,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외향성과 성취욕구,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연구모형 경로계수(표준화 회귀계수)

[Figure 2] Research model path coefficient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표 5] 개인적 특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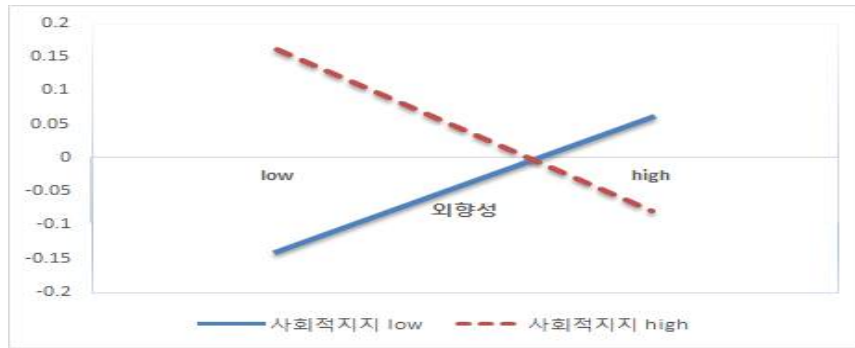
[Table 5]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ship intention

Path	B	SE	β	t
기업가정신->외향성	.64	.09	.35	7.18***
기업가정신->성취욕구	1.18	.07	.64	15.98***
기업가정신->자기효능감	.84	.09	.46	9.90***
기업가정신->창업의도	1.14	.11	.60	10.08***
외향성->창업의도	-.01	.04	-.01	-.18
성취욕구->창업의도	-.02	.05	-.02	-.34
자기효능감->창업의도	.09	.05	.09	2.02*
외향성X사회적 지지->창업의도	-.11	.04	-.11	-2.73**
성취욕구X사회적 지지->창업의도	-.05	.03	-.07	-1.39
자기효능감X사회적 지지->창업의도	.01	.04	.01	.23

*p <.05, **p <.01, ***p <.001

4.2.2 조절효과분석

상호작용항의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외향성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beta=.41, p<.001$)이 창업의도를 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향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절효과의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기울기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적용하여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가 낮을 때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나 사회적 지지가 높을 때는 외향성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성취욕구와 창업의도,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조절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4.2.3 매개효과분석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기업가정신은 자기효능감을 거쳐 창업의도로 가는 간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04$, $p<.05$). 앞선 분석에서 기업가정신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업가정신이 외향성을 거쳐 창업의도로 가는 간접경로, 기업가정신이 성취욕구를 거쳐 창업의도로 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외향성과 성취욕구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 매개효과 검증

[Figure 6] Mediating effect verification

Path	β	SE	t
기업가정신->외향성->창업의도	-.00	.03	-.25
기업가정신->성취욕구->창업의도	-.01	.06	-.40
기업가정신->자기효능감->창업의도	.04	.04	1.98*

* $p <.05$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이 사회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창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30대~60대 직장인을 표본으로 기업가정신, 개인적 특성,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을 검증하여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가정신(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이 높은 개인이 창업의도가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

하였다[25, 29].

둘째, 개인적 특성의 하위요소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42]를 뒷받침한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육을 통해 형성된 기업가정신이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창업동기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창업의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43].

넷째, 외향성과 창업의도에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외향성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가 조절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문제해결 지향적인 외향적 성향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36]를 지지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의도라는 종속변수에 대한 개인적 특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창업의도를 통합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변수와 개인적 변수의 상호작용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 외향성을 포함시켜 연구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태에서 외향성을 포함하여 기업가정신과 창업의도 간의 연구 결과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창업에 쉽게 매칭 시킬 수 있겠지만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다. 외향성을 개인적 특성에 포함하여 외향성의 작용 메커니즘과 창업의도와의 연관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창업장려 프로그램 등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이 개인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 성공창업자 초청특강 등을 확대하여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창업 열풍이 확산되어 많은 개인들이 창업을 희망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역량을 잘 알지 못하여 막상 창업에 발을 들여놓기에 막연해 주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업가정신과 아울러, 창업자 개인에 대한 특성과 기업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환경적 요소인 사회적 지지라는 변수를 이해하여 동시에 연구 한다면 창업의도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일반기업 직장인 37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통계 처리하여 창업의도에 대한 영향력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를 확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연구에는 젊은 연령층의 20대~30대와 중장년층의 40대~50대 집단을 나누어 이들의 창업의도를 비교할 수 있는 확장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예비창업자의 창업동기, 창업의도 등은 향후 동일한 모집단의 다른 표본을 이용한 모델안정성 검증을 실시하여 다른 모집단의 표본을 이용한 타당성 확장을 검증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많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표본집단의 내면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심층면접법, 참여관찰법과 같은 질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하여 설문조사와 병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H. W. Jeon, Startups Status and Implications in Domestic and Overseas, Hyundai Economic Research Institute VIP Report (2016), Vol. 654.
- [2] N. Carter, W. Gartner, K. G. Shaver and E. Gatewood, The Career Reasons of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Vol.18, No.1, pp.13-39.
- [3] J. Y. Kim and Y. R. Lee,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Busan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Reduction of Unemployment Rat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2016), Vol.11, No.6, pp.111-122.
- [4] B. S. Yoon,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2004), Vol.17, No.2, pp.89-106.
- [5] C. H. Yook and I. O. Jeon,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on the Intention of Entrepreneurship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Mentoring in Korean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4), Vol.14, No.10, pp.661-676.
- [6] S. T. Kim,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Korea (2014)
- [7] S. Cohen and H. Hoberman,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83), Vol.13, No.2, pp.99-125.
- [8] Y. J. Cho and B. Y. Lee, A Study on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2016), Vol.11, No.4, pp.17-25.
- [9] N. F. Krueger, M. D. Reilly and A. L. Carsrud,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00), Vol.15, No.5, pp.411-432.
- [10] B. J. Bird,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88), Vol.13, No.3, pp.442-453.
- [11] J. M. Veciana, M. Aponte and D. Urbano,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2005), Vol.1, No.2, pp.165-182.
- [12] J. H. Lee, The Influence Effects of Personal Traits, University and Social Supports on Student's Startup Intention, Ph.D dissertation,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2014)
- [13] D. Greenberger and D. Sexton, An Interactive Model of New Venture Initi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988), Vol.26, No.3, pp.1-7.

- [14] M. H. Morris and G. W. Paul,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Marketing in Established Firm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87), Vol.2, No.3, pp.247-259.
- [15] R. Baron and S. Shane, *Entrepreneurship: A Process Perspective*, Nelson Education. (2007)
- [16] B. J. Yo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Spirit and Moti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on Establishment of New Business by Undergraduate Student,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Korea (2012)
- [17] D. J. Storey, *Understanding the Small Business Sector*, Routledge publishers, London (1994)
- [18] D. Miller,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1983), Vol.29, No.7, pp.770-791.
- [19] J. G. Covin and D. P. Slevin,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91), Vol.16, No.1, pp.7-26.
- [20] G. T. Lumpkin and G. G. Dess,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996), Vol.21, No.1, pp.135-172.
- [21] J. Hage, *Theories of Organizations*, Wiley Publishers, New York (1980).
- [22] J. R. Kimberly, Managerial Innovation, In P. C. Nystrom and W. H. Starbuck (Eds.), *Handbook of Organizational Desig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1)
- [23] M. J. Kirton, Have Adaptors and Innovators Equal levels of Creativity?, *Psychological Reports*. (1978), Vol.42, No.3, pp.695-698.
- [24] C. W. Lee, A Study on the Rol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Organizational Entrepreneurship, Ph.D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of Business, Korea (1999)
- [25] W. A. Long, W. L. Tan and P. B. Robinson, The Relationship of Attitudes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Babson College-Kauffman Foundation Entrepreneurship Research Conference, (1995)
- [26] J. Tang and Z. Tang, The Relationship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Risk-taking Propensity to New Venture Performance: A Test of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Munific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2007), Vol.4, No.4, pp.450-472.
- [27] H. J. Yoon, M. K. Jeon and T. J. Kim,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International Performance of Korean Business Ventures: The Different Role of 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taking,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Institute*. (2017), Vol.13, No.3, pp.287-301.
- [28] S. D. Chang and J. H. Lee, A Study on the Influencing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E-Business Start-up Intention, *The E-business Studies*. (2013), Vol.14, No.3, pp.37-53.
- [29] Y. J. Cho and S. H. Lee,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Performanc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2), Vol.15, No.5, pp.143-154.
- [30] L. Herron and R. B. Robinson Jr, A Structural Model of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haracteristics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993), Vol. 8 No.3, pp.281-294.

- [31] Y. J. Choi, Characteristics upon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 Focusing on Skin Care Workers, Master's thesis, Seo-kyeong University of Department of Business, Korea (2011)
- [32] A. Y. Noh and Y. S. Kang, Personality Psychology, hakjisa, Korea (2003)
- [33] C. G. Jung, Psychological Types, Princeton University Publishers. (1971)
- [34] H. J. Eysenck & M. W. Eysenck,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Plenum NY publishers. NewYork (1985).
- [35] G. Y. Jung and J. H. Lee, University Student's Adult Attachment and Responsive Characteristics to the HTP. Korean Art Therapy Association. (2012), Vol.19, No.1, pp.59-111.
- [36] H. S. Kim, The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s Will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s MBTI Personality Type and Job's type,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2010), Vol.5, No.2, pp.89-114.
- [37] S. H. Kim and J. S. Hahn, Relations Among Learner's Personality Types, Self-Direction, Attitudes and Self-Efficacy toward Technology, and Achievement in Cyber University,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2007), Vol.13, No.2, pp.79-106.
- [38] D. S. Chang, Start-up and Management, Kyong-gi University Publishers, Korea (2006)
- [39] N. Krueger, and D. V. Brazeal,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94), Vo.18, No.3, pp.91-104.
- [40] A. Bandura and D. Cervone, Self-evaluative and Self-efficacy Mechanisms Governing the Motivational Effects of Goal Syst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3), Vol.45, No.5, pp.117-128.
- [41] B. G. Lee, Influences of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in Continuous Participating Intention by Participants of Civil Servants Physical Education Programs, Ph.D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Korea (2011)
- [42] S. J. Han and J. G. Le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bjective Norm,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2017), Vol.7, No.10, pp.503-511.
- [43] J. H. Ya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4), Vol.9, No.6, pp.65-77.
- [44] G. Y. Ahn and B. G.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ctivism / Achievement Needs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ex, Korea Business Review. (2002), Vol.31, No.5, pp.1311-1334.
- [45] S. J. Lee and B. Y. Whang, Exploratory Study on a Psychological Traits Changes by Entrepreneurship Short-term Educa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0), Vol.5, No.1, pp.19-44.
- [46] B. R. Johnson,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990), Vol.14, No.3, pp.39-54.
- [47] J. L. Komives, A Preliminary Study of the Personal Values of High Technology Entrepreneurs. In: Technical Entrepreneurship: A Symposium. Center for Venture Management Milwaukee. (1972), pp.231-242.

- [48] S. S. Park and S. I. Ka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ravel Agency Employe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2007), Vol.31, No.2, pp.187-204.
- [49] Y. J. Jeon and J. K. Bae,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Social Support and Intentional Rumination on Posttraumatic Growth,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2013), Vol.34, No.2, pp.215-228.
- [50] K. H.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Negative Job Seeker's Attitude, and Job Seeking Behavior of Middle-aged Job Seek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2018)
- [51] S. T. Kim,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Chinese College Student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Korea (2014)
- [52] J. S. House,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Addison-Wesley Publishing. (1981)
- [53] S. K. Oh,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of Middle Aged Unemployed Male's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 Ego-Resilience, Job Search 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Korea (2015)
- [54] K. S. Park, Impact of Korean-Chinese's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Korea (2014)
- [55] S. S. Kim and W. K. Lim, A Study on Effect of Social Support on Baby Boomer's Entrepreneurial Opportunity Competence: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017), Vol.12, No.5, pp.101-115.
- [56] D. M. Buss, Selection, Evocation and Manip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7), Vol.53, No.6, pp.1214-1221.
- [57] S. Y. Park, A Compositional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mpowerment of Memb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Venture Business CEOs,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Korea (2003)
- [58] G. G. Dess, G. Lumpkin, A. B. Eisner, *Strategic Management: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s*, McGraw-Hill/Irwin Publisher. (2007)
- [59] B. O. K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EO's Entrepreneurship in SMEs on Business Performance : Franchise Business,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2011)
- [60] J. Y. Chang, A Study of Pre-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Franchise Selection Factor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Korea (2015)
- [61] X. Wei and C. Wang,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Structure of Social Support for Private Entrepreneurs, *Asian Social Science*. (2009), Vol.5, No.2, pp.11-14.
- [62] J. H. Kim, The Effe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Behavior,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orea (2013)
- [63] G. S. Lim,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Institutional Assistance on the Behaviors of Early Founders,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Korea (2017)

- [64] F. Liñán and Y. W. Chen, Development and Cross - 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09), Vol.33, No.3, pp.593-617.
- [65] J. H. Kim, The Effects of Subjective Norm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Korea (2018)
- [66]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ublishers. (2015)
- [67] P. M. Bentler and D. G. Bonett,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1980), Vol.88, No.3, pp.588-606.
- [68] K. A. Bollen,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989), Vol.17, No.3, pp.303-316.
- [69] P. M. Bentler,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990), Vol.107, No.2, pp.238-246.
- [70] M. W. Browne 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age Focus Editions. (1993), Vol.154, pp.136-162.